

새로운 고양, 변화의 시작 2023 고양특례시 미래비전

지난 2월 7일 제27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3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고양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시정연설문을 발췌·요약하여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새롭게 바뀔 고양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갈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고양특례시는 근본적인 체질 변화에 앞선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내외 상황도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로 삶은 더 팍팍해져만 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고양특례시의 예산 또한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됐으나, 이뤄야 할 것은 더 많아진 한 해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입니다. 자족도시로의 돌파구를 찾던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추상적이기만 하던 자족도시라는 도화지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더해진 셈입니다.

창릉천이 ‘환경부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큰 결실도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3,200억 원 규모의 전례 없는 대형 프로젝트로, 적극적으로 공모에 도전해 얻어낸 만큼 더 빛나고 값진 성과입니다.

경기도 주관 ‘2022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각종 적극행정 부문의 수상이 이어졌으며, 민원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종합만족도 9.25점의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고양특례시의 행정력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가 고양의 잠재력을 드러낸 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 힘을 바탕으로 꿈을 실현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고양특례시가 맞이하게 될 전환점과 미래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전환입니다.

미래 전략산업을 선도하고, 뛰어난 관광자원과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품요롭고 창조적인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략적 기업유치와 기업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동력으로 자족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고양 경제자유구역으로 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으로 고양의 가능성을 증명해보였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 최종선정을 위한 발판을 탄탄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함께 분계도에 오를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기업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동시에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 기지와 이를 뒷받침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등 영상문화단지 조성도 조속히 추진해 고양을 한류 콘텐츠의 요람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 고양특례시가 되겠습니다. 775억 원의 투자유치 기금을 마련해 실수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을 지닌 **창업·벤처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족한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대규모 산업 인프라로 자족도시의 틀을 다졌다면, 그 안은 양질의 일자리로 채워겠습니다. 단순히 ‘많은’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겠습니다.

올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연구용역을 실시해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 육성방안 등을 모색하고 벤처기업 유인책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 창업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양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단계별 육성 지원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채용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을 유도하고, 청년들에게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해 능력 있는 인재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다시 뿔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사업장 시설 개선,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허브도시’로의 전환입니다.

교통은 쉽고 빠르고 편리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더 이상 출퇴근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올해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고양시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일산 연장, 3호선 급행 추진, 9호선 대곡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등의 노선을 검토**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연장 사업은 고양·김포·인천 3개 도시의 공동 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 모색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은 ‘복지’입니다. 고양시 곳곳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누리버스는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을 줄이고, 노선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승객의 호출에 따라 이동하는 **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DRT) 운송사업**도 새로 추진해 교통소외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덜겠습니다. 현재 총 256대인 **저상버스를 2026년까지 300대 추가 도입**하여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돕겠습니다.

커지는 도시규모에 따라 도로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 일산IC 기하구**